

1. 교환학생 현지대학 신청서 작성(0.5장~1장)

- ①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제출한) 서류
- ②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작성
- ③ 준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

Libera Università di lingue e comunicazione IULM-MI	
DOMANDA DI PRESCRIZIONE ALLE ISTITUZIONI DI FORMAZIONE SUPERIORE IN ITALIA A.A.: 2025/2026	
ID Domanda:	663890
Dati personali	
Nome:	HyeRyeon
Cognome:	Sim
Sesso:	F
Data di nascita:	(개인정보보호)
Stato di nascita:	
Città di nascita:	
Attuale cittadinanza:	
residente in [via, civico, città, cap, stato]:	
Telefono:	
Email:	
Codice fiscale italiano:	
Numero passaporto:	
Data scadenza passaporto:	
Domanda di prescrizione	
Motivo per la richiesta del visto:	Voglio trascorrere un periodo di mobilità per studio/tirocinio (ad esempio Erasmus)
Ambasciata/Consolato dove verrà richiesto il visto:	AMBASCIATA SEOUL - COREA DEL SUD, REPUBBLICA DI
Scelta del corso di studio	
Istituzione:	Libera Università di lingue e comunicazione IULM-MI
Corso:	Media
Tipo di corso:	Corso/i singolo/i - Single course(s)
Inviata a Libera Università di lingue e comunicazione IULM-MI il: 28/10/2025	

(University 등록확인증)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서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저도 어떤 서류를 준비했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현지 대학의 국제학생지원센터와 메일을 자주 주고 받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테니 틈틈이 메일 확인하시면 서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탈리아에 가기 전 'University'라는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저도 어떤 서류인지 다시 찾아봤는데요. 'University'는 '(구글 검색) 이탈리아 대학 및 고등교육 연구부(MUR)에서 운영하는 이탈리아 유학 및 대학 입학에 위한 공식 통합 포털입니다.'라고 합니다. 이 문서는 이탈리아에 가서 의무로 하셔야 하는 행정 처리할 때 꼭 필요한 문서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런 행정을 위한 문서들은 비자 서류를 준비하면서 대부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이니 다음 항목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학교 등록을 위한 신청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처럼 학생등록-수강신청-기숙사 신청 등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메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준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 모든 소통을 영어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읽고 쓰는 것에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실수할까 봐 노심초사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 된 메일이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번역기나 AI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2. 비자 및 항공 (0.5~1장)

① 파견국가 비자 취득 방법 ② 비자 취득에 걸리는 시간 ③ 비자 취득 시 유의사항



(비자발급 당일 대기줄)

일단 한가지 강조하겠습니다. 교환학생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먼저 이탈리아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비자를 신청하러 갈 날짜를 예약하시길 바랍니다. 예약! 무조건 먼저 하시길 권고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약을 늦게 하면 이미 예약이 차버려서 빠르게, 원하는 날짜에 방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출국 한달 전에 비자신청 하러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출국 전까지 비자가 안 나올까 봐 걱정 많이 했으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꼭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도 일주일만에 개인 메일로 비자 발급이 되었으니 안내한 날짜에 방문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자 취득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12월 말에 비자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휴가 끼어서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자 준비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대사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았고, 이 시기에 학교 과제, 팀플, 그 외 대외활동까지 하고 있던 시기라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어찌저찌 다 했습니다. 특히 서류 준비하면서 하나라도 놓치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가 미뤄진다는 생각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이탈리아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필요한 서류 내용을 정독했고, '이탈리아 교환학생'이라는 키워드로 글을 쓰신 블로그를 참고하면서 서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A라는 사람은 필요하다는 서류가 B라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필요할 것 같은 서류도 모두 챙겨갔습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대사관 직원분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냥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INSURANCE POLICY



WELCOME ASSOCIATION ITALY

INSURANCE COVERAGE FOR NON-EUROPEAN UNION FOREIGN CITIZENS STAYING IN ITALY EXCLUSIVELY FOR STUDY PURPOSES

Purposes Stay

☒ Study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Welcome Association Italy Offices:
Via dei Marsi, 31 - 00185 Rome
Tax Code: 15536801002

Insured Party Information

(개인정보보호)

Insurance Policy Information

Insurance Policy Number 400625996 - 400626001
Date of effect 12:00 a.m. of 01/02/2026 Expiry date 12:00 a.m. of 01/08/2026



SCAN THE QR CODE TO CHECK THE SUBJECT OF THE COVERAGE



This document constitutes proof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surance coverage.
The contractual documentation is available on www.waitaly.net.
For information: Tel. 06.3618076 - Email info@waitaly.net

(WAI보험증명서)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서류 하나는 보험 서류였습니다. 저는 한국 보험사를 통해 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탈리아 회사에서 발급한 보험 서류여야 함을 몰랐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서류 하나만 신청해서 빠른 시일내로 이탈리아 대사관 공식 메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WAI 보험'이라고 하며 'Welcome Association Italy'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도 블로그를 통해 알았습니다.

3. 수업 정보 (1장)

① 수강 과목, 수업 내용 ② 수업의 분위기 ③ 수업강도 및 어학 능력 요구도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1:00					
11:30					
12:00					
12:30		CREATIVITY AND DESIGN			
13:00		Villa Alessandro Aula 125 [IULM 1]			
13:30		12:00 - 13:30			
14:00				PERFORMING ARTS AND NEW TECHNOLOGIES	
14:30					
15:00				Fuoco Ester Aula 114 [IULM 1]	
15:30				13:30 - 16:30	
16:00		CREATIVITY AND DESIGN	ENGLISH FOR THE ARTS		
16:30		Villa Alessandro Aula 113 [IULM 1]	Ornaghi Elisabeth Marida Aula 153 [IULM 1]		
17:00		15:00 - 18:00	15:00 - 18:00		
17:30					
18:00					

(이탈리아 대학교 시간표)

저는 3과목을 신청했습니다. 수업에서 만난 국제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보통 4~5개 정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전 학기에 한국에서 몸을 갈아 넣어 공부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는 여유롭게 수업을 듣고 싶었습니다. 3개를 들어도 시험기간에는 똑같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 보다는 시험 준비 기간이 충분했고, 여유롭게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술을 다루는 수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ENGLISH FOR THE ARTS', 'CREATIVITY AND DESIGN', 'PERFORMING ARTS AND NEW TECHNOLOGIES'를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폐강이 되어, 'PERFORMING ARTS AND NEW TECHNOLOGIES'를 'PUBLIC SPEAKING'으로 변경했습니다.



(ENGLISH FOR THE ARTS-쉬는시간)

수업마다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ENGLISH FOR THE ARTS' 수업은 예술과 관련된 사진, 전시, 기사, 이력서 등을 쓰고, 읽고, 말하기를 위주로 배웠습니다. 제가 들었던 수업 중 가장 과제가 많았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예술 전시장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과제로 자주 내주셨으며, 수업과 관련된 예술 작품 해석 글을 읽는 것을 위주로 수업하셨습니다. 그중 매주 강의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마이크를 건네주며 자기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만큼 바빴고, 영어로 발표해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었던 수업이었지만, 밀라노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술의 면모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줬던 수업이었습니다.



(CREATIVITY AND DESIGN-기말발표)

'CREATIVITY AND DESIGN' 수업은 대형 강의로 팀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며 시험은 개인 보고서 제출 1개, 기말 팀 발표 1회로 점수를 책정했습니다. 프로젝트 내용은 팀별로 밀라노에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그곳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을 디자인하여 지역사회발전에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5명의 팀원과 현장 방문, 디자인, 발표까지 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팀플을 하면서 영어 말하기가 가장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이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은 국제 학생으로서 밀라노가 친숙하지 않다 보니 주된 과제 결과물 컨셉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데 스스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탈리아인 친구들이 주제를 내놓으면 그 주제가 설득력 있게 교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기말고사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수업이었습니다.



(PUBLIC SPEAKING-기말과제)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를 한 달 남기고 수강했던 'PUBLIC SPEAKING' 은 Non-Attendance Student(비참여학생)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학교의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모든 수업이 학생들을 '참여학생/비참여학생' 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수업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수업에 나가지 않으면 게으르게 생활할 것 같아서 빠짐없이 수업을 나갔지만, 'PUBLIC SPEAKING' 수업은 어쩔 수 없이 비참여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기말평가가 4~5분 내 개인 연설 영상을 촬영하여 올리면 되는 거여서 부담 없었습니다. 한 달이라도 수업을 나

가서 들어보니 첫 수업부터 들었다면 영어 연설을 하는 데 도움되었겠다 싶었습니다. 워낙 발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 '애초에 이 수업에 신청할걸...'이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업 강도나 어학 능력 요구도는 사람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영어로 들었지만 보통 60~70% 정도로 교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영어사전을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 없어 힘들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말할 때, 쓸 때, 문법을 잘못 말하면 어떡하냐며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영어에 가까이 있는 환경에 있으니 어떤 경로로든 공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받지 않으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 캠퍼스 생활 정보 (1~2장)

①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의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 및 서비스, ② 필드트립, 학생 활동 등 참여한 활동 정보,

③ 식당, 쇼핑, 주변 관광 등 학교 인근 지역 정보



(밀라노 아트 위크-<아름다움과 파멸>)



(밀라노 아트 위크-<맥도날드>)

IULM 대학교는 작습니다. 캠퍼스가 한림대학교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숙사, 도서관, 체육관, 식당은 모두 강의실에서 멀지 않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바로 옆에 지하철 출입구가 있어서 시내든 밀라노 주요 지역으로 수업 후 이동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교통은 서울처럼 늦게까지 편리하게 되어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필요한 필드트립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밀라노란 패션위크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곳에는 여러 가지 행사나 전시가 있습니다. 그중 모든 수업의 교수님들이 보고서 과제로 내주셨던 것이 '밀라노 디자인 위크', '밀라노 아트 위크' 였습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대기업 브랜드의 전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들의 전시를 거리마다 열고 있어서 축제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

밀라노의 랜드마크로는 '두오모 성당'이라는 시내 중심에 아주 멋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쇼핑하기 아주 좋은 스팟입니다.



(저녁 나빌리에 거리)

그리고 '나빌리에'라는 큰 마켓을 여는 거리가 있습니다. IULM 대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밀라노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 이탈리아 전통 식전주인 '아페롤' 과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하셔 식전주도 드셔보시고, 밀라노에서 유명한 음식인 '리소토'도 드셔보시고, 특히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는 큰 마켓도 열고 있으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 홍보 (0.5장)

현지 학생에게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홍보 활동

현지 학생에게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홍보 활동 유럽 현지에서 거창한 대형 설명회 부스를 차리거나 대규모 행사에 참여해 학교를 홍보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생활 속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한림대학교를 알릴 기회가 많았습니다. IULM 대학의 수업들은 조별 과제가 많고 국제학생과 현지 이탈리아 학생들이 한데 섞여 토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서로의 국가와 대학 문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무궁무진했습니다.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진 덕분인지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는 현지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대화 시간을 기회로 삼아 자연스럽게 우리 한림대학교를 홍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대학과 이탈리아 대학의 시스템적 차이점에 관해 토론을 나누었는데요, 한국 대학생들이 팀 프로젝트나 발표를 준비할 때 보여주는 엄청난 완성도와 성실함, 시각 자료(PPT) 제작 능력의 강점을 이야기해주기도 했고, 반대로 이탈리아 학생들이 거침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역동적인 수업 분위기에서 제가 느낀 신선한 충격들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의 훌륭한 커리큘럼과 캠퍼스 인프라를 소개하며, 각자의 교육 환경과 대학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양방향 홍보 및 교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6. 자기평가 (1~2장)

- ①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 ②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필요성
- ③ 파견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해결방법



(영상과제촬영)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며 느낀 점은,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채로우며, 나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디어와 영상 제작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디자인과 예술의 본고장인 밀라노에서 보낸 매 순간은 거대한 시각적 자극이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텍스트로만 배우던 예술 비평과 디자인 이론을 '밀라노 디자인 위크'나 현지 미술관 필드트립을 통해 온몸으로 직접 체감하면서 전공에 대한 시야가 확연히 넓어졌습니다.

또한, 완벽하지 않은 영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친구들과 조별 과제를 완수하고 기말 프레젠테이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엄청난 효능감과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정답만을 쫓던 한국에서의 치열한 대학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조금은 여유롭고 주체적으로 내 삶을 운영하는 법을 배운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친구에게 한국 추억의 게임 알려주기)

대학 생활 중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단순한 어학연수나 해외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필수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확신합니다. 관광객의 시선으로 겉핥기식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대학의 행정 시스템을 스스로 겪어내고, 현지인들과 협업하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경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국적 학생들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가 가진 데이터를 통해 팀에 기여하는 방식을 배우는 것은 오직 교환학생 프로그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자산입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해외 대학을 경험하고 넓은 세상의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파견 기간 중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출국 전부터 시작된 '영어 소통과 행정 처리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대사관 비자 서류 준비부터 학교 등록, 'University' 신청 등 모든 것을 영어로 실수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혼자 끙끙 앓기보다 파파고, 제미나이, ChatGPT 등 다양한 AI 번역 및 교정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초안을 작성한 뒤 AI를 통해 문맥을 다듬어 메일을 보냈고, 애매한 정보는 '이탈리아 교환학생' 블로그 후기들을 꼼꼼히 대조하며 더블 체크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노트북 한쪽에 항상 사전을 켜두고 모르는 단어를 즉시 검색하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문법이 틀려도 기죽지 않고 조별 과제에서 시각 자료 조사 등 제가 잘하는 영역으로 팀에 기여하며 소통의 장벽을 허물어트렸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에서의 '생활 속 돌발 변수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타지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교수님의 사정으로 수강 과목이 폐강되어 급하게 'PUBLIC SPEAKING'으로 수업을 변경해야 하는 행정적 변수가 생기기도 했고, 현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룸메이트와 주거 규칙 및 친구 초대 문제로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지치고 감정이 상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피크닉)



(밀라노 시내 산책)

이러한 주거 환경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제 오랜 취미이자 스트레스 해소 창구인 산책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에너지를 회복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복잡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털어내었고, 타지에서 건강하게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혼자 공공 앞기보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정기적으로 영상 통화를 하며 생활 속 고민들을 투명하게 상의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는 낯선 이국땅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중심을 잡는 데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주거지 내의 갈등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등 성숙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한층 더 어른스러운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한림대학교 글로벌교류센터 관계자분들 덕분입니다. 이를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인재로 거듭하여 미래 실무 현장에서도 넓은 시야를 가진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